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01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특별전으로 BIFAN 찾은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

〈니나 포에버〉 벤 블레인 감독

〈마트 강탈 사건〉 이가영 감독

아 시 아 10 개 국
흥 행 작 과 만 나 다

2016.07.25

MON

05

시네마



손목에 착! 벌레걱정 끝!

모기, 벌레가 많은 여름철
야외활동 하시기 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박스오프만 있으면 모기, 벌레에 물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목 착, 벌레걱정 끝내줍니다

모기, 벌레 퇴치 손목밴드, 박스오프

무독성 밴드타입의 모기 퇴치 방향제
박스오프
Be your safe life with Bugs Off



- 사용이 간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착용,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목형 밴드
-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합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양질의 천연허브 오일사용
- 오래갑니다
국내 코오롱사 최고급 정품 원단사용으로 향이 오래갑니다
- TV에서도 인기입니다
정글의 법칙, 이빠, 어디가 등에서 출연자들이 사용, 입증되었습니다
- 4가지 다양한 컬러
언제 어디서나 취향에 따라 골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박스오프 | 기타 야외활동 시 사용



놀면서 크는
패밀리파크 웡플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패밀리 워터파크 & 스파



서울 도심에서 30분, 대한민국만세와 함께하는 짜릿하고 Cool한 웡진플레이도시!
☎ 자동차 |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IC ☎ 지하철 |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 출구 ☎ 1577-5773 ☎ www.playdoci.com

BIFAN BOARD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4 ————— 5



공연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펀딩

영화 후원을 위한 '판타스틱 스토리펀딩'이 7월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천시청 1층에서 진행됐다. 제작비 및 배급 비용 확보를 위한 이번 행사에선 <강기훈 말고 강기타>, <국정교과서와 내 아이의 역사교육>, <뚜르, 잊혀진 꿈의 기억>, <자백> 총 네 편의 영화가 소개됐다. 최승호 감독과 이범준 음악감독 등이 게스트로 참여해 영화 펀딩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기타와 오보에가 함께 하는 콘서트와 영화 스토리에 관한 토크가 이어졌다.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들의 응원이 후원으로 이어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판타스틱영화의 최전선

7월25일 오후 7시 고려호텔에서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AFF)가 개막식을 열고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NAFF는 제작, 교육, 교류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NAFF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에 선정된 말레이시아 영화 5편을 집중 조명할 예정으로, 27일 해당 프로젝트의 감독 및 프로듀서들의 피칭이 진행된다. 수상작은 28일 저녁 B.I.G 폐막식 및 NAFF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SF적 상상력의 확장

7월24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공동주최한 'SF 판타스틱 포럼'이 개최됐다. 1부 '웹툰 <신과 함께>의 사례를 통해 본 SF 판타지 원작의 무한 가능성'에서는 웹툰 <신과 함께>가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는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리얼라이즈픽처스 원동연 대표는 "〈신과 함께〉는 현재 35회 차까지 촬영했다. 원작자인 주호민 작가 덕분에 괴롭고도 행복한 작업 중"이라며 제작 상황을 전했다.



왼쪽부터 원동연, 주호민, 조은성.



매진, 매진, 또 매진! 뜨거운 열기 속으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진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개막 전 온라인을 통해 100여 편 이상의 상영작이 매진되었고 현장에서 판매되는 표들도 이른 시간에 구매하지 않으면 구하기 쉽지 않다는 소식. 공식 홈페이지 '커뮤니티'의 '티켓 나눔터'에선 상황을 반영하듯 200건이 넘는 나눔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한 표가 있다면 홈페이지 티켓 나눔터로 고고.



스페셜한 토크는 계속된다

주말이 지나도 스페셜 토크는 계속된다. 7월25일 오후 5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사무라이 픽션> 상영 후 가수 윤종신, 작사가 김이나의 스페셜 토크가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8시20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상영 후 장철수 감독의 스페셜 토크도 준비되어 있다. 27일 오후 5시 20분에는 <자구를 지켜라> 상영 후 장준환 감독을 만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말.말.말

“한국에서 카가와 데루유키 같은 배우를 찾자면, 이문식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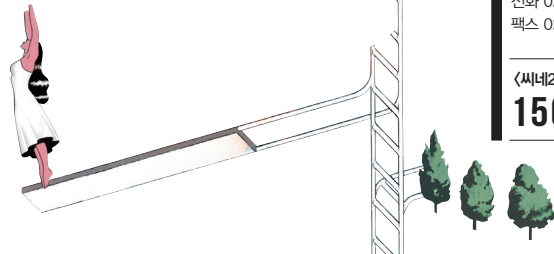
〈크리파: 일가족 연쇄 살종 사건〉GV 중 멀쩡하면서도 음침한 한국 배우를 떠올리던 임필성 감독.

“이렇게 짝 찬 객석을 보니 ‘앉아 있는 지식인은 걸어가는 바보를 이길 수 없다’던 미셸 오디아르 감독의 말이 떠오른다.”

〈그랑블루〉상영 후 열린 ‘메가토크’에서 기욤 고베르 프랑스문화원 담당관.

“〈로스트 인 서울〉을 꼭 찍어보고 싶다. 아니지, 〈로스트 인 부천〉!”

〈로스트 인 홍콩〉쉬정 감독, 한국에서 ‘로스트’ 시리즈를 찍을 계획은 없다는 질문에.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05

2016.7.25

EVENT

16:00
무브먼트 – NE Band
17:00 부천시청 어울마당
스페셜 토크 – 〈사무라이 픽션〉 상영 후 진행.
게스트: 가수 윤종신, 작사가 김이나
19:00 CGV부천역
무브먼트 – 차광민
20:20 부천시청 어울마당
스페셜 토크 –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상영 후 진행. 게스트: 감독 장철수, 배우 황금희

표지사진 오계욱

발행인 김충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혜지
객원기자 김수빈 김은솔 이호준
사진 오계욱 권영탕
디자인 김은 김지원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구독문의
1566-9595



마트 강탈 사건

ROBBERY

이가영 | 홍콩 | 2015년 | 90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왜냐고 묻는 대신 그냥 줄 것. 부친의 밤거리를 수놓은 네온사인들 보면 영화 속 그곳이 생각날 거예요.

한량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핑(중국상). 하지만 자독한 잔소리꾼에 머릿속엔 돈 생각 밖에 없는 악질 사장(임설)을 만난다. 핑이 할 수 있는 건 과자봉지에 구멍을 내고 샌드위치 속을 헤집어 놓으며 소심하게 반항하는 것뿐. 한편, 남루한 행색의 노인(풍쉬범)이 편의점에 들어온다. 핑이 더럽혀 놓은 샌드위치를 집어 든 노인은 샌드위치의 상태를 보고 환불을 요구한다. 하지만 스크루지 사장에게 환불은 어렵도 없다. 노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장의 목에다 들고 있던 가위를 내다 쏜다. “삼페인에서 마개를 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의기양양했던 사장은 일순간 ‘삼페인’ 신세가 되고 평화로운 편의점은 노인이 주도하는 인질극의 장으로 변한다. 사정 모르는 손님들은 자꾸만 편의점에 들이닥친다. 〈마트 강탈 사건〉은 가게 문을 열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선 7인의 생존 게임을 담는다. 특징을 한정짓기 힘든 편의점이란 공간이, 개성 강한 인물들이 펼치는 캐릭터쇼의 무대가 된다.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2014)의 제목을 재치 있게 패러디하며 시작한 영화는 스릴러, 호러, 고어, 드라마 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온갖 장르를 넘나든다. 고립된 7인은 다들 평범하게 등장하지만 저마다 정체를 숨기고 있다. 각자의 사연이 한 컷씩 벗겨지며 변모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이 영화의 재미다.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정상범주를 벗어난 인물들이다. 때문에 그들 행위의 이유를 찾으려 하기 보다는 고삐 풀린 이들이 벌이는 한판 아수라장을 낚 놓고 즐기는 것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다. 네온사인의 이미지, 인물마다 다르게 쓰이는 조명, 풍부한 색감의 화면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미술 또한 영화의 매력이다. 라디오 DJ, 작가, 배우 등 영역을 넘나들며 재능을 펼쳐온 홍콩 출신 이가영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이다.

김수빈 객원기자



에바는 잠들지 않는다

EVA DOESN'T SLEEP

파블로 아구에로 |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 2015년 | 85분
월드 판타스틱 블루



31

31

롭 좀비 | 미국 | 2016년 | 102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웬컴 투 좀비 블러디 할로윈

1976년 10월31일,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다. 도로를 달리던 히피들은 모종의 세력에 의해 납치당한다. 누가, 왜 그들을 납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은 12시간 안에 여러 단계의 관문을 거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찰리(세리 문 좀비)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일행은 피와 오물로 뒤섞인 혹독한 게임을 치른다. 롬 좀비의 4년 만의 신작으로 캐릭터 비주얼과 살육 시퀀스에 대한 미학적 집착은 여전하다.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아름답고 참혹하게 인체를 난자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다만 시원하디기 보단 끈적거리리는 쪽이다. 성적 코드도 물론 풍부하고, 정체 모를 권력자들이 특정 공간에 희생자를 몰아넣고 괴롭히는 지독한 변태적 취향도 그답다. 전작에 사용한 설정을 뒤섞거나 반복하기도 하는데, 가령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날은 ‘할로윈’이고, 강인한 히로인 찰리는 롬 좀비의 부인인 세리 문 좀비가 연기한다.

윤혜지

화면, 형식, 인물, 배우 모두 강렬하다

서른셋의 이른 죽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퍼스트 레이디 에바 페론의 죽음을 한달간의 국민장으로 추모했다. 에바 페론은 성녀라는 찬사와 인기로 영입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사이에서 지금도 ‘규정되지 않은’ 역사이자 ‘문제적’ 인물이다. 〈에바는 잠들지 않는다〉는 그녀의 사후 25년, 후안 페론이 정치적 수단으로 그녀의 사체를 미라로 만들었던 그 ‘야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다. 사후의 에바 페론은 그녀의 시체를 방부처리한 미라 전문가, 그녀를 미라로 만들도록 명령한 독재자 후안 페론,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 미라가 된 사체를 운반했던 군인의 손을 차례로 거쳐간다. 극화된 영상의 저편에는 이미 죽은 그녀를 추앙하는, 혹은 동요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담은 뉴스릴 화면이 끊임없이 교차 편집된다. 미라가 되어서 살아 숨쉬지 못하는 에바 페론은 사실상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각군의 사람들의 태도로 그녀가 가진 상징성이 입증된다. 그건 미라 이전, 살아 있는 그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방식이다.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 방부처리사로, 드니 라방이 장교로 출연,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다.

이화정



니나 포에버

NINA FOREVER

벤 블레인, 크리스 블레인 | 영국 | 2015년 | 98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당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호러 로맨스

〈니나 포에버〉는 ‘호러 로맨스’라는 장르를 관습적으로 표방하지 않는다. ‘남녀 커플이 사랑을 나누는 순간 사고로 죽은 남자의 전 여자친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침대 밑에서 불쑥 나타난다’는 기막힌 설정은 이 영화만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섹스와 핏빛이라는 양극단의 쾌감은 묘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슬픔’이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롬과 응급구조사로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홀리, 그리고 딸(니나)을 먼저 보낸 부모의 비통함 등 극중 인물들은 각기 다른 슬픔을 지닌 채 아파한다. 롬과 홀리는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그녀의 흔적을 전부 지워내지만 니나는 그들의 곁을 떠날 줄 모른다. 과연 둘은 니나를 떨쳐내고 사랑을 이뤄낼 수 있을까? 영화는 뻔한 해피엔딩 대신 영화가 끝난 다음의 롬과 홀리를 상상하게 한다. 단언컨대, 〈니나 포에버〉는 올해 BIFAN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영화다.

이호준 객원기자

中島哲也

특별전과 마스터 클래스로 BIFAN 찾은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

소재에 맞는 최적의 표현이 나의 스타일이다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유난히 ‘재미’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아마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연출 의도를 물어봐도, 캐스팅 이유를 들어도, 장면에 대한 해석을 부탁해도 답변은 일관되게 “그 편이 더 재미있지 않나”는 반문이 돌아온다. 그와의 인터뷰는 먼 길을 돌아 ‘감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새삼 상기시켰다.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 소재에 도전하는 게 더 즐겁다는 그는 그 때도 지금도 한결 같은 영화 ‘청년’이다.

올해 특별전 ‘나카시마 테츠야의 고백’으로 BIFAN을 방문했다. 20회를 맞이한 만큼 특별한 초대다.

한국영화를 무척 좋아하고 즐겨본다. 그래서 내 영화를 좋아해주는 한국 관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하다. 무엇보다 스크린에서 영화를 다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 다만 자기 영화를 말로 소개하는 건 아무리 해도 어색해서 외려 관객들에게 실례가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좋은 말만 해줘서 믿을 수 없다. 단체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 (웃음) 한 번에 놓고 보니 <불량공주 모모코>(2004),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2006), <파코와 마법 동화책>(2008)과 이후 <고백>(2010), <갈증>(2014) 사이 간극이 새삼 크게 느껴졌다.

변화를 의식하고 작업한 적은 없다. 개별 작품을 연출하다보니 각각의 이야기에 적합한 스타일과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고백>과 <갈증>이 유사해 보이는 건 단지 연달아 찍었고,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다. 어떤 스타일이나 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오진 않는다. 항상 흥미를 느낀 소재, 탐구하고픈 인물에 맞춰 최적의 영상표현을 생각한다. 나름의 패턴은 있지만 당분간은 영업비밀로 하고 싶다. (웃음)

확고한 자기 세계 안에 머무르는 혹은 고립된 캐릭터들을 주로 그려왔다.

정확히 그런 캐릭터들에 매력을 느낀다. 타인에게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

하지 못하는 캐릭터들의 내면이 궁금하고 그 속내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게 재미있다.

필모그래피 뒤로 갈수록 비관적인 해석이 선명해지는 느낌이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캐릭터 상은 사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모모코, 마츠코, 유코 모두 고립되고 주변 상황에서 걸도는 인물들이다. 변한 게 있다면 인물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어디까지 솔직하게 표현했는가 하는, 수위 문제다. 예전에는 좀 더 유머러스한 부분들을 강화해 표현을 순화했다면 <고백>과 <갈증>은 그런 꾸밈을 지웠다. 불친절해진 것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진 것도 아니다. 그게 그 이야기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파코의 마법 동화책>에서 환상이란 요소의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리얼리티를 강화한 거라 봐도 되나.

글쎄, 꼭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판타지적인 표현은 여러 방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불량공주 모모코>와 <고백>을 나란히 놓고 보시라. 어떤 면에서는 <불량공주 모모코> 쪽이 훨씬 리얼하고 <고백>이 과장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고백>의 공간들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려진다. 잘 보면 다큐멘터리적인 냄새를 지우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다만 <불량공주 모모코>는 화려한 색감을 사용했고 <고백>은 단조로운 모노톤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착시가 일어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영화란 픽션,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나는 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최적의 이미지를 탐색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화면들이 현실이 될 순 없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적이어야 한다.

<고백> 당시 인터뷰에서 항상 영화화하기 어려운 소재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주로 원작을 영화화하는 건 그런 이유에서인가.

마스터 클래스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현재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원작이 있는 걸 영화화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산업적으로 분명 그런 일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답하면 나로서는 원작이 있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다른 사람이 구상한 것을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에 주로 흥미를 느낀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나. 타인의 이야기를 내가 그려본다는 것, 그 아슬아슬한 긴장관계가 제작초기부터 나를 자극한다. 만약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면 아무래도 객관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다. 설사 이야기가 있다 해도 소설을 쓰지 영화로 만들진 않을 거다.

“현재의 관객에게도 통할 수 있는 무성영화를 만들고 싶다”던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물론이다. 지금도 내 간절한 꿈 중 하나다. 영화에 목소리와 색이 들어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흑백무성영화들에서 풍요롭고 자유로운 표현들을 발견할 때가 적지 않다. 다만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 아직 내 실력으로 무리다. 언젠가 조건이 갖춰지고 확신이 들면 꼭 도전해보고 싶다.

글 송경원 · 사진 오계욱





일상의 마법 같은 순간들

〈니나 포에버〉벤 블레인 감독

도무지 장르를 파악할 수 없는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벤 블레인 감독은 “다들 호러라고 말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이 영화의 장르는 ‘매직 리얼리스트 러브 스토리’다. (웃음)”라고 말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듯하지만, 마법 같은 상황들의 연속이다. 나는 그런 상황들을 포착하려 노력한다”고 말하며 “한국 방문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BIFAN 참여 소감을 밝혔다. 형제 크리스 블레인과의 공동감독이자 첫 장편 데뷔작인 〈니나 포에버〉는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첫 잠자리를 가지려는 찰나, 남자의 죽은 전 여자친구인 니나가 침대에 나타나며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다뤘다. 독특한 소재와 연출이 인상적인 영화로 감독이 10년 전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 딸을 잃은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됐다.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감독이 생각하는 슬픔은 이 영화의 장르나 감상평만큼이나 다양하다. “슬픔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이다. 아름다울 수도, 색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속에서 슬픔에 빠진 이들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은 감독이 궁극적으로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다. 다음 작품은 눈이 멀어져 가는 82세 할머니의 양로원 탈출기를 그린 히치콕 풍의 영화다.

글 김은솔 객원기자 · 사진 권영탕

세계는 꼭 정해진 방법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다

〈마트 강탈 사건〉이가영 감독

“놀이공원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대로 〈마트 강탈 사건〉은 롤러코스터부터 귀신의 집까지 갖춘 장르의 놀이공원이다. “1초 간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영화”라고 감독은 말한다. 늦은 밤 홍콩 뒷골목의 한 편의점에 청년, 자영업자, 경찰 등 온갖 사람들이 모여든다. “영화에서 편의점은 홍콩 그 자체다. 홍콩에 있을 법한 다양한 계층을 한곳에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싶었다.” 편의점은 청년 세대의 빈곤함과 무력함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홍콩이든 한국이든 젊은이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비슷하다. 내가 세 살 때 유덕화가 톱스타였는데 마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는 톱스타다. 지금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덕화가 될 수 없다. 젊은이에게 기회가 없다.” 감독은 청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단다. “세계는 꼭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깨어나가며 배우는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두 배의 시간을 들이고, 연극처럼 모든 신을 모든 배우가 함께 촬영했다는 감독의 경험에 기반을 둔 조연이다. 감독의 차기작은 치정으로 얹힌 네 남녀의 이야기란다. “목표는 〈영웅본색〉의 여자버전”이라는 귀뜸에 이른 기대를 품어본다.

글 김수빈 객원기자 · 사진 오계욱



‘베스트 오브 아시아’
특별전

박스오피스 순서로 헤쳐모여!



01



02

01 〈도성풍운2〉
02 〈몬스터 헌트〉

김수빈 객원기자

지난해 아시아 각국의 박스오피스를 달군 30편의 영화가 제20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모인다.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의 2015년 박스오피스 상위 1~3위에 해당하는 자국영화를 상영하는 ‘베스트 오브 아시아’ 특별전을 통해서다. 미지의 영화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부상하는 아시아 영화시장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다. 아시아 관객의 사랑을 받고 부천에 당도한 30편의 리스트를 소개한다.

개한다.

박스오피스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눈에 익은 작품이 꽤 있다. 한국 작품 중에는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최동훈 감독의 〈암살〉, 우민호 감독의 〈내부자들〉이 오랜만에 스크린을 통해 관객을 만난다. 모두 지난해 하반기 신드롬에 가까운 반응을 끌어낸 흥행작이다. 중국에선 아기 요괴 우바와 요괴 사냥꾼들의 모험을 다룬 실사애니메이션 〈몬스터 헌트〉, 귀기 서린 무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도굴담 〈심용결〉, 〈인재경도〉와 〈로스트 인 타이일랜드〉에 이은 쉬 정표 코미디 〈로스트 인 홍콩〉이 선정됐다. 일본의 흥행 1위작도 요괴와 모험을 키워드로 하는,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 〈극장판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다냥〉이다. 괴물과 인간의 우정을 다룬 호소다 마모루표 애니메이션 〈괴물의 아이〉, 의문의 죽음에 얹힌 비밀을 풀어가는 법정극 〈히어로2〉가 뒤를 잇는다. 홍콩에선 영춘권의 전설 염문과 일대중사를 꾸꾸는 장천지의 대결을 다룬 〈염문3: 최후의 대결〉, 폐교 위기의 학교를 구해내려 분투했던 선생의 실화를 다루는 〈리틀 빅 마스터〉, 주윤발의 액션 코미디 〈도성풍운2〉가 꼽혔다. 학창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청춘물 〈나의 소녀시대〉는 대만 박스오피스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고, 혼인을 매개로 양안 관계의 현실을 그려낸 〈대희임문〉, 대만의 괴담을 소재로 한 〈마신자: 빨간 옷 소녀의 저주〉가 뒤를 이으며 부천의 스크린에 걸린다.

동남아 5개국의 영화들은 비교적 낮은 이름들로 채워져 있다. 타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국왕으로 꼽히는 나레수안 왕의 전기영화 〈킹 나레수안 일대기〉, 타이영화의 기대주 나오폴 탐롱라타나릿 감독의 로맨스물 〈괜찮아요? 프리랜서〉, 평범하지만 비밀스러운 소녀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메이 후?〉가 특별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원 모어 찬스〉의 주인공 포포이와 바사의 두 번째 만남과 사연을 다룬 〈세컨 찬스〉, 미인대회에 잠입한 경찰들의 좌충우돌을 그린 〈미녀와 야수〉, 필리핀 발 〈로미오와 줄리엣〉, 〈마이 베베 러브〉가 필리핀 박스오피스를 흔들고 역시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된다. 베트남영화들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수상한 그녀〉의 베트남 리메이크 버전인 〈내가 니 할매다〉, 제작을 시작으로 프로덕션 관리, 마케팅까지 한국과 합작한 〈마이가 결정할게2〉를 비롯해 베트남 시골을 배경으로 한 형제의 성장드라마 〈초록 들판의 노란 꽃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마약 수사로 얹힌 두 경찰의 유쾌한 버디무디 〈폴리스 에보〉, 평범한 남자의 백만장자 체험담을 그린 〈마이 파파 리치〉, 가짜 연인 행세로 곤욕을 치르는 남녀의 사연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 〈결혼이야기〉는 말레이시아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영화로는 결혼과 육아, 일에 관한 여성의 고민을 담은 〈컬러 오브 러브〉, 코미디언으로 위장한 비밀요원 8명의 이야기를 담은 〈카지노의 왕들 파트1〉, 연애에 서툰 남자가 짝사랑에 도전하는 코미디 〈싱글〉이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FEATURE

Confessions of an Auteur: A Master Class with Nakashima Tetsuya



To say that director/scribe Nakashima Tetsuya is one of the most creative filmmakers in contemporary Japanese cinema feels like an understatement. His ability to fascinate with strikingly inventive colours and dynamic visual compositions, alongside intensely powerful and provocative themes, have propelled the him to cult status and international acclaim.

The director will be celebrated throughout BIFAN 2016 with a special program dedicated to his incredibly creative and thrilling cinematic achievements, entitled I Confess, Nakashima Tetsuya. Audiences can revel in the vivid bubblegum stylizations and narrative eccentricities of Kamikaze Girls (2004), Memories of Matsuko (2006), and Paco and the Magical Book (2008), before delving into the maestro’s darker, more macabre explorations with Confessions (2010) and The World of Kanako (2014). It’s a great opportunity for fans to revisit his work, and for newbies to discover his cult status, on the big screen.

For many, Confessions is the highlight in the auteur’s consistently impressive career and as such a special screening of the film alongside a Master Class was held with Nakashima Tetsuya – and moderated by BIFAN

programmer Alice Yoo - where he explained in an extremely comprehensive manner about the themes and characters throughout his filmography. He began by explaining his focus on adaptations, stating, “When I take an original story and say I’m going to turn it into an original film, people are more relieved and more likely to invest. So it’s for a practical reason.” Here are some of the highlights regarding his body of work:

On Kamikaze Girls:

“We filmed in the middle of summer and it was so hot and there was no shade, so the crew would pass out from the heat. They were very harsh circumstances.” [...] “We had no budget set aside for the artwork, so the hair and other artwork we managed to do by going to a junkyard and getting all the props that way.”

On Memories of Matsuko:

“I expressed desire and love, and the character of Matsuko has a good side and an evil side. So the love that she wants to pursue, there are many people who could identify with that but there are many people who can identify with her desire as well, so it’s up to the audience to decide about her character.”

On Paco and the Magical Book:

“Everyone was wearing a lot of makeup. When you have this much makeup on it’s very hard to show a difference in subtle expressions. So the actors had to rely on their eyes a lot, and it was hard to express emotions. While we were shooting I was thinking, wow these people can do a wide variety of expressions with just their eyes”

On Confessions:

“In the case of the teacher in this film, and the students and their distorted kind of mentality, I thought that if I make a film out of this kind of story, then how could I portray the characters? I thought it was right to have a monotone world, without any color. The objects in the frame, I took out as many as I could. I wanted to show only minimal things.”

On The World of Kanako:

“I made The World of Kanako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 structure.” [...] “I’m not sure whether we have to identify with the characters, I don’t think that’s absolutely necessary. If everybody loves a character and film, that’s not appealing to me. It’s more interesting to have films that cause controversy and get controversial responses from the audience.”

Simon McEnteggart

REVIEW

Lost In Hong Kong: A Salute to Hong Kong films

‘Lost in Hong’ is the third installment in the “Lost” series from its star Xu Zheng (Lost on Journey 2010) and the 2nd in the series directed by the man himself after his feature directing debut with Lost in Thailand (2012).

The comedy tells the story of art student Xu Lai (Xu Zheng) who falls in love with his university classmate Yang Yi (Du Juan). A montage of mishaps tells us the couple have failed to have a first kiss before circumstance brings about their separation. Xu Lai eventually finds love, marries and becomes successful outside of the art world. Whilst on vacation with his wife Cai Bo (Vicki Zhao Wei) and her overbearing family in Hong Kong, the opportunity to meet Yang Yi comes up and Xu Lai feels an urge to complete that unfinished kiss with his first love. With his annoying constantly filming brother-in-law Lala (Bao Bei’er) undesirably in tow, Xu Lai sets out on his quest and he will eventually have to choose between his first love and his wife.

It’s a laugh a minute salute to Hong Kong cinema which includes prolific filmmaker Wong Jing (From Vegas to Macau series 2014-2016) as a parody of himself, references to other films including Chungking Express (1994), Jackie Chan and Stephen Chow styled physical comedic action and a soundtrack that will send any Cantopop fans back in time.

Comedy is a difficult genre to transcend boundaries as cultural and social experiences will vary with each country and persons comedic attitude, but Lost in Hong Kong seems to have enough silliness for everyone to have a good laugh

Chocoshrek

INTERVIEW

In Conversation with Romain Roll



Luxemburg native Romain Roll is a man who knows his genre films. Currently working as the market manager for the Brussel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ere he is busy preparing the launch of the first European genre film market, Mr. Roll also serves as a coordinator for the federation of European Fantastic Film Festivals,

promoting genre films from the region. In short, he is a very busy man. Yet despite his hectic schedule Mr. Roll took the time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importance of genre cinema and BIFAN’s role in the industry.

How often have you been to BIFAN?

It’s now my sixth time here at BIFAN. I remember the very first time, it was in 2000. So it was 16 years ago, when it was at the beginning and now I can see during all those years the big evolution of the festival.

What part of BIFAN is the most important to you?

For me the most important part is of course the industry gatherings - so meeting people, especially from Asia, and making very good contacts with those people. Of course also checking out some Asian movies, especially Korean movies, as I don’t have the chance to see them everywhere.

Why do you think genre film festivals are so important to the film industry?

Genre film are in two ways very important for the film industry. The first point is an economic point because they are the only films who get a financial return, and also there’s a huge market. There’s a huge audience for genre movies that goes from children, young people, teenagers to old people because genre films really reflect our society, and when society has really big problems you can see that in genre movies. It’s a kind of expression.

Do you have any words for BIFAN?

I want to congratulate BIFAN for their 20th anniversary and I hope that we can have the 40th and 50th anniversaries together!

Simon McEnteggart

SCHEDULE

영화명 원제 | 등급 | GV | 예매코드 | 극장

1 회차 대희임문 The Wonderful Wedding | 11:50 | ㉔ | 402 | FC 리틀 빅 마스터 Little Big Master | 11:30 | ㉔ | 401 | SS 내부자들 Inside Men | 11:50 | ㉔ | 403 | HYU2 내가 니 할매다 Sweet 20 | 11:30 | ㉔ | 404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s Films 15 | 11:30 | ㉔ | GV | 405 | HYU4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s Films 5 | 11:30 | ㉔ | GV | 406 | HYU5 포인트 제로 Point Zero | 11:50 | ㉔ | GV | 407 | HYU6 오픈 The Open | 11:30 | ㉔ | GV | 408 | HYU7 에바는 잠들지 않는다 Eva Doesn't Sleep | 11:50 | ㉔ | 409 | HYU8 캄패들 The Mobfathers | 11:30 | ㉔ | 410 | BST4 **2 회차** 파코와 마법 동화책 Paco and the Magical Book | 13:50 | ㉔ | 412 | CH 레이더스!: 사상 최고의 팬필름 Raiders!: The Story of the Greatest Fan Film Ever Made | 14:50 | ㉔ | 413 | FC 부활 Re:Born | 14:30 | ㉔ | GV | 411 | SS 베테랑 Veteran | 14:50 | ㉔ | 414 | HYU2 마이가 결정할게 2 Let Hoi Decide | 14:30 | ㉔ | 415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s Films 7 | 14:30 | ㉔ | GV | 416 | HYU4 이도공간+열 개의 계단 Inner Senses+The Ten Steps | 14:30 | ㉔ | 417 | HYU5 인어와 함께 춤을 The Lure | 14:50 | ㉔ | 418 | HYU6 메이 후? May Who? | 14:30 | ㉔ | 419 | HYU7 라울로 살인 사건의 전말 The Rotten Link | 14:50 | ㉔ | 420 | HYU8 리자의 달콤 살벌한 연애 Liza, the Fox-Fairy | 14:30 | ㉔ | 421 | BST3 마음을 읽는 아이 The Shamer's Daughter | 14:30 | ㉔ | 422 | BST4 빌마크 2 Villmark Asylum | 14:30 | ㉔ | 423 | BST6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s Films 8 | 14:00 | ㉔ | 1401 | OA 우리 생애 최고의 날 The Most Beautiful Day | 14:00 | ㉔ | 1402 | SH **3 회차** 사무라이 픽션+차라리 먹어주세요 Samurai Fiction+Melt Down | 17:00 | ㉔ | GV | 425 | CH 배우, 헬무트 베르거 Helmut Berger, Actor | 17:50 | ㉔ | 426 | FC 악마의 키스 The Hunger | 17:30 | ㉔ | 424 | SS 소르겐프리카: 격리된 마을 What We Become | 17:50 | ㉔ | 427 | HYU2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The Phantom Detective | 17:30 | ㉔ | 428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s Films 9 | 17:30 | ㉔ | GV | 429 | HYU4 메멘토+열 개의 계단 Memento+The Ten Steps | 17:30 | ㉔ | 430 | HYU5 사랑의 불시착 I'm Not a Rebel | 17:50 | ㉔ | GV | 431 | HYU6 태양 The Sun | 17:30 | ㉔ | 432 | HYU7 31 31 | 17:50 | ㉔ | 433 | HYU8 트레이더스 Traders | 17:30 | ㉔ | 434 | BST3 비트코인을 잡아라 Bitcoin Heist | 17:30 | ㉔ | 435 | BST4 달타냥의 검 Code M | 17:30 | ㉔ | 436 | BST6 **4 회차**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죽음의 춤 Bedevilled+Danse Macabre | 20:20 | ㉔ | GV | 438 | CH 일어나, 김광석 Who Killed Kim Kwang-seok? | 20:50 | ㉔ | 439 | FC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 The Man Who Fell to Earth | 20:30 | ㉔ | 437 | SS 셸리 Shelley | 20:50 | ㉔ | GV | 440 | HYU2 프란시스의 밀실 The Cabinet of Francis | 20:30 | ㉔ | GV | 441 | HYU3 헛 미 안+대동단결 Let the Right+One In United We Stand | 20:30 | ㉔ | 442 | HYU4 전병협 Pancake Man | 20:30 | ㉔ | 443 | HYU5 수부라 게이트 Suburra | 20:50 | ㉔ | 444 | HYU6 괜찮아요? 프리랜서 Heart Attack | 20:30 | ㉔ | 445 | HYU7 피닉스 라이트사건 The Phoenix Incident | 20:50 | ㉔ | GV | 446 | HYU8 니나 포에버 Nina Forever | 20:30 | ㉔ | GV | 447 | BST3 암살교실: 졸업편 Assassination Classroom: Graduation | 20:30 | ㉔ | 448 | BST4 마트 강탈 사건 Robbery | 20:30 | ㉔ | GV | 449 | BST6 굿 맨 A Good Man | 20:00 | ㉔ | 1403 | OA 바스킨 Baskin | 20:00 | ㉔ | 1404 | SH

등급 Rate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㉔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㉔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㉔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㉔ 19세 이상 관람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SS 송내술안아트홀 CH 시청 어울마당 FC 시청 판타스틱 큐브 HYU2 CGV부천 2관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HYU8 CGV부천 8관 BST3 CGV부천역 3 BST4 CGV부천역 4 BST6 CGV부천역 6 KM 한국만화박물관 SH 소사구청 소향관 OA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상영일정은 영화제쪽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IFAN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자원활동 황당무개팀 염상윤, 김은서, 김수정



자원활동 중에서 황당무개팀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김은서 BIFAN 자원활동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면 중,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다.

황당무개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 김수정 BIFAN을 홍보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사진을 찍거나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후 3~5시 사이에는 부천시청 잔디광장 부스에서 카드게임 대회가 열린다. 1~3등에게 경품이 지급되니 많은 참여 바란다.

분장 컨셉이 범상치 않은데, 염상윤 BIFAN에서 상영하는 작품이나 올해 유행한 영화 캐릭터로 분장한다.

매일 바뀌니 기대해 주시라. (웃음)

분장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김수정 무엇보다 너무 덥다. 햇빛 때문에 분장이 계속 흘러내리고, 오늘은 겨울옷까지 껴입어서 나 혼자만 찜질방에 와 있는 느낌이다. (웃음)

시민들이 BIFAN을 어떻게 즐기길 바라나. 염상윤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다양한 콘텐츠도 즐겼으면 좋겠다. '평 먹고 알 먹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

글 이호준 객원기자 · 사진 권영당

CINSTAGRAM



오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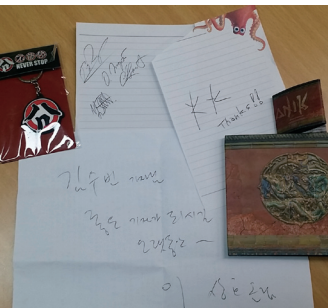


...

영화#(로스트 인 홍콩)으로 부천을 방문한 대륙이 사랑하는 배우겸 감독 #취정. 밤 12시에 가까운 시간에 촬영을 하고도 에너지 넘치는 이 코믹 셀카본능이러니.



김수빈



...

취정, 이상호, 이가영 감독, 밴드 모하닉을 만났다. 인터뷰만 하면 팬이 되고 마는 나. 비정상인가요. 마음이 부천부천해~(v~) #인터뷰=입덕 #취정감독사인은속소에 #여기서도문어는신스틸러



Power 제품을 성공으로 이끄는 솔루션

Mobile 제품을 성공으로 이끄는 솔루션

고객의 성공을 위한 솔루션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일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최적의 기술, 고객이 선호하는 어플리케이션 전문성,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고객 친밀성 등이 고객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합니다. 페어차일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www.fairchildsemi.com 에서 확인하세요.



페어차일드 CEO Mark Thompson의 기술 및 혁신에 대한 견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QR 스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비주얼 링크를 찾아 스캔 하시면 관련 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현금이 되니까,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나멤버스 하나 Money]



현금으로 OK!

여러 포인트를 모아 KEB하나은행에서
바로바로 현금으로 인출 가능



앱만 깔면 OK!

금융기관의 별도 방문/신청없이
앱만 설치하면 언제든지 사용



어디서나 OK!

하나카드 쓸 때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ANDROID APP ON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iPhone App Store

※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 및 하나캐피탈은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KEB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5-광고-3185호(2015.10.30 ~ 2016.10.29), 하나카드 준법심의 15-2334(2015.10.30),
하나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5-265호(2015.11.23~2016.11.22), 하나캐피탈 준법심의필 15-0038(2015.11.02 현재),
하나생명 준법감시인 심사필 하생 2015-853, 하나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0035호(2015.10.30)